

보 도 설 명 자 료

(‘16. 12. 28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가입률 0.00014%… 정부 ‘전기매매’ 신산업 헛발질”
(‘16.12.28, 이데일리)

1. 기사내용

- ☐ 이웃 간 전기를 사고파는 1조원대 신산업(프로슈머)이 가입자가 거의 없어 유명무실해 짐 (2,200만가구 중 31가구로 0.00014%)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☐ ‘프로슈머’는 전기소비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에 우해야 참여 가능한 사업이므로, 2,200만 전체가구를 모두로 가입률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
- ☐ 향후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한 전문 프로슈머 사업자의 등장 (개정안 국회 심의중), 신재생 발전가격의 하락 등으로 프로슈머 거래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으로,
 - 시행이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실증사업의 결과만을 가지고 프로슈머 사업 전체의 성패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신용민 과 장 (044-203-5260)
조영길 사무관 (044-203-5267)